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보

2010 신년호 Vol.36

공지사항

제1회 경상북도의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차상위계층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협조요청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및 장애인등록절차 변경 안내
201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안내
희비납부서신_회원님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다시 하나 되어

또 한 해,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
새 땅과 새 하늘 열렸어라
시간의 새 실타레가 올해도 어김없이 풀리나니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왜소(矮小)해져가던 우리 몸 추슬러
새로운 각오와
다시 도전하는 마음 달고
다시 하나 되어
엄힘 없이 흐트러짐 없이
풀어가길 기원(祈願)하자

지선(至善)과 애련(愛憐)으로
새롭게 태어난 호랑이여
저 시리도록 푸른 산하(山河)들
모두 우리의 것이듯이
이 가슴 벅찬 일출(日出)
우리 함께 토해내는 감격이듯이
우리 아름답게 다시 하나 되어
포효(咆哮)하는 맹호(猛虎)의
기개(氣概)로, 그 기세(氣勢)로 돌진하자
더 이상 음지나 나약함을 거부하고
우리 달려야할
더 먼 지평(地平)이 여기 있기에
우리 날아야할
더 높은 고지가 앞에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소망
미지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 모아
절망을 절망하지 않고
가슴 뛰는 전진을 이어가자

자! 이제, 나아가자
호랑이의 용기(勇氣)로 기지(機智)로
나아가자, 가없는 광야(廣野)로
인술 만 리로
우린 제 각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이라
진실로 하나 되는 마음 밭에
때 이르렀으니
새하얀 서설(瑞雪)이 축복이듯 쌓이리라
좁고 낮고 얇은 지략(智略)보다는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지혜(智慧)로
묵은 슬픔, 긴 회오(悔悟) 다 지우고
환호의 횃불 드높이기에
합심(合心)하자
21세기 첫 두 자리 수의 해
2010년 365일 내내
불 꺼지지 않는 의창(醫窓)마다
찬란한 햇살 충만하리라.



박 무 근
박비뇨기과의원(포항)



Contents

2010년 신년호 (제36호) **경북의사회보**



9_



11_



표지설명
윤태권(윤의원, 안동)회원이 촬영한 태백산의 설경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0년 1월 15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종영 · 문기혁 · 김중규 · 오춘석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 941-7785 FAX.(053) 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 555-3336 FAX.(053) 556-3273

3 신년시

다시 하나 되어 · 박무근

5 신년사 · 특별기고

더불어 함께하는 한해를 시작하며 · 이석균
 자신만의 Well Being을 찾는 한 해 만드소서 · 정만진
 한국의료의 부흥과 재기는 회원 여러분의 힘에서부터 · 경만호
 호랑이와 같은 기개로 대약진하여 나라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 김성규

9 포토뉴스

12 회무소식

16 공지사항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차상위계층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협조요청
 새로운 장애인등급판정기준 시행 및 장애인등록절차 변경 안내
 201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안내

23 분회 및 병원소식

37 지역의사회 탐방

구미시의사회 / 영덕군의사회

42 시사칼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을 접하고... · 김재왕

43 의학 및 건강칼럼

겨울철 건강관리 · 황현규

45 회원 문예

수필_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 전 민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 서역수
 mania를 찾아서_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 · 규규호

52 회비납부 독려서신

53 생활정보

대구 · 포항공항 운항시간표 / 심평원 대구지원 민원 전화번호

본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09. 4. 1	이석균 신임 회장 취임	2009. 10. 11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2009. 4. 7	제37회 보건の日	2009. 10. 17~18	경·전북 자매결연 친선행사
2009. 4. 26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09. 10. 26	제35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09. 5. 23~24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학술대회, 친선의 밤, 의학제)	2009. 11. 1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009. 5. 24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	2010. 1. 14	시군회장과 본회 임원 연석회의
2009. 7. 4	분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2010. 1. 15	제36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09. 7. 27	제34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0. 3. 6	2009년도 전체이사회
2009. 9. 27	회원 및 가족 친선 등반대회	2010. 3.	2009년도 회무감사
		2010. 3. 27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더불어 함께하는 한해를 시작하며



경상북도지사회 회장 이석균

존경하는 경상북도 회원 여러분!

희망과 도약의 경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해 오신 회원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인플루엔자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감은 갈수록 확산되고 사회·경제활동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제 서서히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한분 한분 치료하면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에 고심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의 계승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일선 진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원, 지역사회, 정치와의 소통의 완성을 위한 전제로서는 해도 안된다는 패배의식의 탈피와 회원 모두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말고, 소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경북의사회는 2010년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원간의 소통입니다.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회원들에게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 하겠으며, 본회의 젊고 유능한 임원진들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소통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한 호흡'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각 지역별 의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본회 또한 회원께서 진료에 집중하면서 지역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앙 의협에 회원님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와의 소통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정치인후원활동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내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납부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소통의 완성을 위한 전제로서는 해도 안된다는 패배의식의 탈피와 회원 모두는 운명공동체의 일원임을 잊지말고, 소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경북의사회는 2천900여명의 회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추진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만들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으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 경인년 새아침

자신만의 Well Being을 찾는 한 해 만드소서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정만진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경인년 범띠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열두 달이 지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새해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몸도 마음도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웰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의 존재(being)를 잘(well) 느끼며 사는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환경은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의사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더 큰 굴레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탓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찡그리는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나만의 Well Being을 찾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Well Being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유기농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타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일까요? 웰빙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끼에 몇 십만 원 하는 품 나는 식사도 몇 끼만 계속 먹으면 싫증이 나고, 고가의 가구로 잘 장식된 넓고 큰 전망 좋은 집에 살아도 얼마 지나면 느낌이 없어지고, 역대급의 좋은 차를 타도 그 안락함을 계속 느낄 수는 없습니다.

웰빙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의 존재(being)를 잘(well) 느끼며 사는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체가

마비된 사람이 목발에 의지하여 14일의 고투 끝에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후 환한 표정을 짓는 것이 웰빙일 수 있고, 6시간 이상의 험한 산길을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설악산 깊은 골에 있는 봉정암에 올라 0.5㎡(1/6평)의 공간에서 칼잡이를 하고,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먹는 미역국 한 그릇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웰빙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앞산이라고 했던 산이 앞 동네 사람들은 뒷산이라 부릅니다. 지나 여러분이나 의사라면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의료 환경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틀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Well Being을 찾는 뜻 깊은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스포츠 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발표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의사사회 이외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오지의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는, 균형 속의 파격으로 자신만의 Well Being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뜻 깊은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인 아닌 진정한 Well Being을 위하여!

한국의료의 부흥과 재기는 회원 여러분의 힘에서부터...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경 만 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시고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해 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의료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방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신종플루가 일 년 내내 온 세상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신종플루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작은 여러 이슈들이 국가와 사회를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속에서 의료계 역시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36대 의협회는 쏟아지는 현안들과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성취 또한 작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맞아 의협 내 비상대책위를 가동, 정부의 즉장대응에 고삐를 죄며 의료인이 환자치료와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10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지만 패널티 없이 공단 제시 인상을 이상을 끌어낸 것과, 불합리한 현행 수가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육성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 회복도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무너져 있었던 국회의와의 관계를 복원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국회 창구를 열었고, 사사건건 정부와 대립하기보다는 보건의료정책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임의비급여 문제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의사의 소신진료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에도 매진했습니다. 이같은 결실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얻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의협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의협은 새해를 맞아 숨을 고르고 다시 뛰려 합니다. 집행부의 유일한 공약이자 소명인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꽃대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는 동시에, 지금의 구조 하에서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현안들에도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장거리와 단거리 두 종목 모두 전심전력을 다해 펼 것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가톤급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는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료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곧 실시될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무료접종사업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사회의 약자들을 돕고 그늘진 곳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의료의 새 희망을 열어나가는 의협이 되겠습니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루는 데 진력하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협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협의 주인은 집행부가 아닌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집행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회원들의 힘이 모아져야만 의협이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료의 부흥과 재기는 회원 여러분의 힘에서부터 나옵니다. 부디 올 한 해도 의협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든든한 힘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의협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잃지 마시고 각자 제신 자리에서 늘 건승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새해 아침에

호랑이와 같은 기개로 대약진하여 나라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 지원장 김 성 규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저물고 호랑이해인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대구로 내려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으로 근무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당초 대구·경북지역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석균 경상북도의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이 해주셔서 매일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지원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23일 경주에서 개최된 '경북 의사의 날'에 초청되어 특별한 밤을 보낸 것은 아마 제 직장생활 중에 있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통해서도 경북 곳곳의 회원님들의 동향을 알 수 있었고 유익한 정보와 회원님들의 문예작품들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수려한 외형과 적절히 배치된 사진과 글들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대구에서만 업무를 보지 않고 경북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상담 및 간담회 등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료기관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사랑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작금의 의료계에는 의료복지선진화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건강보험분야에서도 외국에 비해 훨씬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국민들

은 높은 의료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낮은 의료수가, 비합리적인 급여기준 등으로 많은 의사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나 하나하나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할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동반자인 의료기관, 의료공급자 및 관련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반드시 제공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발생치 않도록 현실과 제도, 기준사이의 괴리를 해결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품질은 물론, 심사의 자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즉 사람·기관·시기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심사품질향상에 힘쓰며, 의료기관이 스스로 양질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예방적 심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구·경북의 모든 분들의 힘으로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대구·경북에 유치하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된 것으로 끝이 아님을 회원여러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분들의 힘을 다시 뭉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경상북도의사회가 호랑이와 같은 기개로 대약진하여 나라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의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위문공연과 더불어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포항시의사회

2009. 12. 29

포항모자원



- 1 3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공연
- 2 성금전달
- 4 5 연주하는 회원들
- 6 모자원 어린이들의 재롱
- 7 회원가족과 모자원 식구들





경주시의사회

2009. 12. 17 대 자 원
2009. 12. 18 예티쉽터



2



3



4



5

- 1 대자원 관계자와 기념촬영
- 2 예티쉽터에 성금전달
- 3 예티쉽터 관계자의 현황설명
- 4 대자원 어린이들에게 선물전달
- 5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백승인회원
- 6 예티쉽터 관계자와 기념촬영



6



1



2

경산시의사회

2009. 12. 22

청구재활원



3

1 2 청구재활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3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성금전달

4 청구재활원에 사랑 나눔 물품 전달



4



2009 무료개안수술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 성황리 개최

무료개안수술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00여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2009 TBC 무료개안수술이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구·경북안과개원의사회가 주관하고 대구·경북내과개원의사회와 경상북도공동모금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뚜라미보일러가 후원하는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접수한 환자 70명(경북 37명, 대구 33명)을 대상으로 술

전검사를 통해 11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어 35명(양안포함)의 환자에게 밝은 빛을 선사하였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안과 41곳의 의료기관(경북 17곳, 대구 24곳)이 참여하여 전액 무료로 진행되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참다운 인술을 펼쳤다.

TBC대구방송에서는 지난 11월 11일(수) 특집생방송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무료개안수술을 홍보방송 하였으며, 무료개안수술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00여명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무료개안수술 참여 안과 의료기관

밝은눈연합안과의원(포항), 경주성모안과의원·조수호안과의원(경주), 민안과의원(김천), 안동제일안과의원·연합성모안과의원(안동), 밝은안과의원·현대안과의원(구미), 김현수안과의원·영천삼성안과의원·영천성모안과의원(영천), 경산제일연합안과의원·우경호연합안과의원·하양삼성안과의원(경산), 서울중앙안과의원(의성), 삼성안과의원(청도), 우리삼성안과의원(칠곡)



200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성료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를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본회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에서 회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나날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최신 의학지전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보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0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는 이동석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를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최신의학 지식과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였다.

이날 본회 이석균 회장은 인사에서 '맑은 가을 날씨속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학술대회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회원들 모두 유익한 시간과 회원 간 단합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뜻 깊고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이정기 사무관으로부터 2009년도 마약류 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학술강연으로 동국대의대 내과 이영현 교수의 신종 인플루엔자의 이해와 관리 등 5편의 학술연제와 의협 경만호 회장의 의료산업화 도전과 과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지는 등 추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자

- 2009 마약류 관리 교육
 - 이정기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사무관
- 신종 인플루엔자의 이해와 관리
 - 이영현 동국대의대 내과 교수
- 외래에서의 당뇨관리 및 최신지견
 - 손호상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 피부 레이저 시술의 최신지견
 - 이지민 웰피부과의원 원장
- 개원의를 위한 유방초음파
 - 황미수 영남의대 영상의학과 교수
- 유방암 수술 및 재건의 최신 경향
 - 박호용 경북대 의전원 외과 교수
- 의료산업화 도전과 과제
 - 경만호 의협 회장



이정기 사무관



이영현 교수



손호상 교수



이지민 원장



황미수 교수



박호용 교수



경만호 협회장



이동석 학술이사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관계관 간담회 개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본회와 경상북도 보건당국간 간담회를 지난 1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와 경상북도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이순옥 보건정책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신종플루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보건당국의 노고를 치하한다' 라고 하였다. 이어 김장주 국장은 '전문가 단체로서 신종플루 환자 진료와 예방접종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사 회원님들께 감사드



리며, 도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 고 주문하였다.

이어 이순옥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신종플루 대응체계의 현황 및 동향과 향후 중점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항바이러스제 적기 처방과 의료기관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또한 대언론 홍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신종플루 공포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하였다.

본회 및 시군의회사무직원 회의 개최

지난 2009년 11월 18일 오후 5시 대구 사무처에서 본회 및 시군의회사무직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재영 사무처장으로부터 2009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 현황과 의협 공제회 가입, 신종플루 진료 관련 의료기관 지침 및 주말 진료와 관련한 안내와 경북 의사회보 계간 발행,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 제정에 대한 주요 회무보고가 있었다.

토의사항에서는 2009년도 회원명부 발간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줄것과 누락 회원이 없도록 시군의회사무의 각별한 협조와 2009년 의사회비 징수에 사무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회원정보 및 각종 양식이 다원화되어 관리부분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통합적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이날 이석균



회장과 장유석 재무이사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회 회무와 회원을 위해 수고하는 사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회비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 는 인사가 있었다.

심평원대구지원과 본회 간담회 개최

본회와 심평원대구지원은 지난 11월 2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남산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신명준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 단체의 허심탄회한 고충을 알아감은 물론 편한 자리가 되도록 하자' 라고 하였으며, 김성규 대구지원장은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개정하고 의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심사과정 상 회원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사회에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며,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답했다.

‘2009 TBC 무료개안수술’ 감사패

본회와 대구시의사회, TBC대구방송 공동으로 실시한 ‘2009 TBC 무료개안수술’이 완료됨에 따라 TBC대구방송에서는 대구·경북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밝은 세상을 열어주고 평소 고귀한 인술과 따뜻한 이웃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뜻을 본회에 전달하여 왔다.

수능시험장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진 지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수험생들이 불편없이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경북도내 수능시험장에 의료진을 지원하여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시험

장에서 발열환자에 대한 진단과 신종플루와 관련한 응급 상황 발생시 적극 대처하였다. 경북 도내에 마련된 2010 학년도 대학수능시험장은 지구별로 62곳과 병원시험장 11곳에 마련되어 197명의 의료진이 지원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뱃지 무상 배부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 및 의협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뱃지 달기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의협뱃지 3천개를 일괄 구입하여 시군의사회 및 병원을 통해 소속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회원 동정

선린의료원 이건오 원장 ‘한국피스메이커상’



인산의료재단 선린의료원 이건오 원장이 사회각계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의 통로역할을 실천한 공로로 한국피스메이커(Korean Peacemaker Ministries)가 증정하는 제6회 피스메이커상을 수상했으며, 이날 받은

상금 1천만원은 현장에서 전액 자선기금으로 기탁했다.

이건오 원장은 평생 사회에 공헌하는 의료인과 신앙인으로서 의료선교와 성서화운동 등을 통해 사회와 지역의 로기관 및 지도자들의 화해를 중재하고 화합의 리더십에 모범을 보여 영향력 있는 피스메이커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온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피스메이커는 설명했다.

동국대경주병원 이경섭 원장, 최우수 논문상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경섭 병원장(본회 부회장)은 지난 11월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비뇨기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논문 임상 부문 “최우수

상”을 수상하였다.

이경섭 병원장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장기 약물요법의 실패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란 제목으로 비뇨기과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3년 연속 영국 IBC 인명사전에 주목받는 교수로 선정, 지난해 10월 국제 히포크라테스상을 수상하는 등 비뇨기과 분야의 선두주자로 맹활약하고 있다.

경주동산병원장에 한기환 교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성형외과 한기환 교수가 지난 10월 1일자로 경주동산병원장에 보직 임용됐다.

한기환 신임 경주동산병원장은 1981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소아병원

객원교수, 대만 장궁기념병원 소아병원 객원교수, 계명대 동산병원 성형외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미국 성형외과학회 회원, 미국 구개열-두개안면외과학회 회원, 아시아태평양 구개안면외과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제 1 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상개요

- (1)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각 1명)
- (2)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냥)
- (3) 후 원 : (주)동원약품
- (4) 시상시기 : 2010년 3월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응모자격

- (1) 학술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
- (2) 봉사상(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제출서류

- (1) 학술상
 - 1)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2)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3) 논문개요 및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에 대한 요약 1부
 - 4) 논문의 별책 각 1권

(2) 봉사상(회원 및 단체)

- 1)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2)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각종사진 및 신문게재용 등 활동사항)

제출사항

- (1) 제출마감 : 2010년 2월 16일(화)
- (2)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경상북도의사회
-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제출서류 마감은 2월 16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 의사회장이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회(☎053-941-7785)나 이동석 학술이사(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 ☎054-770-8255)에게 문의 바랍니다.

경상북도의사회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에 대한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협조요청

신종플루 유행과 전염 차단을 위해 주요 감염 연령층과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1,716만명을 접종대상자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 노인과 의료급여대상자 등은 국가의 무료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없어 자비로 예방접종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로 예방접종비용(15,000원)부담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방접종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종플루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

위험군인 차상위계층 접종대상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긴밀한 정책협의를 거쳐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대상인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종플루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신종플루 위탁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동 사업취지를 감안하시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 위탁 의료기관 무료접종 대상자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총44만명 중 104,567명

- 인터넷 예약 및 위탁의료기관에 대리예약을 통한 사전예약절차를 완료한 대상자

(사전예약 및 접종일정)

접종대상자	사전예약 개시일	접종시작 시기	접종 시 준비사항
만성질환자	2009.12.16	2010. 1. 18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용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접종안내문 지참

- ※ 영유아(미취학아동포함), 임신부 제외
- ※ 차상위 복지 급여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92천명,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11천명, 저소득한부모가족-82천명, 희귀난치성질환-256천명] 총44만명 중에서 만성질환자(무료접종 대상자)를 선별
- ※ 차상위계층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100분의 120이하인자를 말함

※ 영유아(미취학아동포함)는 접종시기의 촉박(12, 7접종 시작)함으로 인해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주간점검회의(2009. 11. 29)에서 대상에서 제외

※ 2009. 12. 1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서 무료접종 대상에서 임신부 제외

■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이용권 발송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상자들에게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이용권을 우편 일괄발송
 - 차상위계층 DB에서 예방접종대상자 중 만성질환자를 매칭해 관할 주소로 발송
- 반송, 분실 재발송, 발송이후 자격취득자의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장이 해당사업 수급여부를 확인 후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이용권을 발급

■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예방접종

- 신종플루 무료예방접종 이용권(쿠폰)[보건복지가족부·의협·병협 공동발행, 시군구(읍면동장)지자체장이 발행]을 소지한 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0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시행 및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 진단의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 2009년 현재 적용중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 2003-37호) 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9-227호) 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장애판정의사 확대(기존 장애진단의사에서 추가)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2. 지체(척추)에 3급 및 4급 신설
3.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 ※ 수정바델지수 : 목욕, 이동, 식사 등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기능장애 평가
4. 심장, 간질은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
5. 호흡기장애에 5급 신설(폐 이식)
 - 심장, 간, 신장, 호흡기(폐) 이식은 의무재판정 제외
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에 따른 소견서는 반드시 진단서와 같이 제출
 - ※ 지체(절단제외), 뇌병변, 심장(성인·소아청소년 각각), 간, 시각, 간질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 확대
- '10. 1.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201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환산지수

구 분	'09년도	'10년도	인상률
의 원	63.4원	65.3원	3.0%
병 원	63.4원	64.3원	1.4%

• 2010년도 보험요율(4.9% 인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현행) 1만분의 508 → (변경) 1만분의 533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현행) 148.9원 → (변경) 156.2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10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를 40%(2009년)에서 60%로 확대적용하여 기존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변경
- 특이사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7장 제2절 단순재활 치료료 중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의 주사항에서 "Teflon Coating Needle"은 삭제됨

건강보험 검진기관 지정 신청

- 기존 신고제 건강검진기관은 2010년 3월 21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함
- 해당 기일까지 검진기관 미지정시 2010년 3월 22일부터 검진기관에서 제외
- 지정신청 방법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를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Tel : 1577-1000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요건 완화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진 인력·장비없이도 검진기관 지정가능

인력장비 구분		지정조건	교육이수사항
임상 병리 분야	임상병리사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경우 없어도 됨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임상검사시설	검체검사 위탁시 2010.1.1부터	
	혈액검사장비	없어도 됨	
방사선 분야	방사선사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시설등의 공동이용의 경우 없어도 됨	-일반검진기관 : 생애전환기2차상담 의사 교육
	방사선촬영실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이용	- 영유아검진기관 : 영유아검진 교육
	방사선촬영기	하는 경우 없어도 됨	

※ 5대암 및 영유아, 구강검진은 별도 인력, 시설 장비 등 구비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임신부와 취약계층 부담완화

구 분	시행시기
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10% → 5%)	'10. 1. 1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입원 20%, 외래 30~60% → 10%)	'10. 1. 1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	'10. 1.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20만원 → 30만원)	'10. 4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인하(입원 20%, 외래 30~60% → 5%)	'10. 7
MRI 보험급여확대(척추, 관절)	'10.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10.10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10.10
장애인보상구 보험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10.10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 안내

-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

근로감독에 대한 대비로 적법한 근로계약서 및 법정 서류들의 구비가 필수입니다. 이에 의료기관 노무관련 표준지침과 관련 구비서류 예시안을 참고하시어 의료기관 노무관리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제도의 의의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 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응 사용자를 사법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제 도

현재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특별감독, 수시감독이 있고, 근로감독청원제, 자율점검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의 근로감독은 간호조무사회의 근로감독청원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기근로감독입니다. 정기근로감독은 사전에 미리 예고한 후 감독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목적은 처벌보다는 계도와 근로환경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근로감독 시 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으며, 시정조치를 내린 후 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는 반드시 처벌됩니다.

대 책

과거 위법상태를 치유하고 장래의 적법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장래의 적법상태는 법정 서류를 제대로 구비 하는 것이 핵심이고, 과거의 위법상태는 장래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부분 치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적법성 확보만으로 치유되지 않고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 각종 제세공과금 체불문제입니다. 임금체불은 각종 법정수당(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보상, 연장이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을 말하고, 제세공과금 체불은 4대보험료와 갑근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각종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임금대장에 급여의 항목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드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업장 근로감독의 핵심이고, 근로감독에 대한 대처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1) 전부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일부 적용 대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규정

- 제14조,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8조, 제34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내지 제100조

3) 적용 제외

•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사업을 하는 경우

동거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 인지 판단

※ 의료기관 노무 관련 표준지침 참고자료

(의협 홈페이지 www.kma.org의 공지사항 참조)

-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취업규칙(변경) 신고서, 취업규칙의견서, 취업규칙변경내역,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 퇴직금산정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전염병인터넷신고시스템 시행 안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병의원에 대한 전염병 신고시스템 현재 사용 중인 '전염병웹보고시스템(<http://www.cdc.go.kr>)'에 덧붙여 '병의원 전염병인터넷신고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 동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병의원-보건소-시·도(보건담당과)-질병관리본부 간 전염병 신고체계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며, 다만 의료기관(의사)의 전염병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종전의 FAX 또는 인터넷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사용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시 외래관리료 산정 관련 안내

- 복지부에서는 요양기관내에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의 촉탁의료 근무하는 의사가 있거나 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과 협약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의거 별지 제11호 서식(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

환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료기관 대처법 안내

- 지난 7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료기관 적용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발생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료기관 대처법'과 '개인정보 취급동의서 샘플', '개인정보취급방침 샘플' 안내

자보분쟁심의회에서 정한 진료료에 대한 안내

- 심의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3부 행위비급여 목록 중 검사에 대한 금액 안내

분류번호	코드	분류	금액	의결일자
노-733	FZ733	비디오 전기 안전검사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전기안전검사] 해당항목 준용	2009.8.27 (제127회)
노-734	FZ734	전정 유발근 전위검사	제2부 제2장 나-618 뇌유발전위검사 라. 청각 유발전위 준용	2009.8.27 (제127회)
노-796	EZ796	안구광학 단층촬영	단안 : 60,000원 양안 : 100,000원	2009.9.24 (제128회)

- 시행일 : 의결일자부터 시행(2009. 10. 1)

의료급여증과 신분증명서 확인 철저 안내

- 최근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의료급여증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받음에 따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시 필히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할수 있도록 안내

신종인플루엔자(관납용) 백신 관련 안내

- 신종인플루엔자백신 국가접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국가검정합격품(관납용 백신)에 대하여 국가검정증지 발급신청 및 부착업무(약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를 2010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증지부착 유예 대상품목 : (주)녹십자 '그린플루-에스프리필드 시린지주' (신종인플루엔자분할백신)[관납용에 한함])함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가검정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관납용)백신은 국가검정 합격품이며, 한시적으로 증지부착을 유예하였음을 안내

국가시험 합격자 건강진단서 발급 협조 요청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의 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개정 전 진단서 서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신속한 면허발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에 건강진단서가 정확히 발급될 수 있도록 안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수수료 조정 결과

검사분야	변경전	조정결과(부가세포함)	
진단용X선장치 (투시검용)	370,375	352,000	
진단용X선장치 (촬영전용)	292,625	220,000 (300mA이하)	253,000 (300mA초과)
유방촬영용장치	326,950	308,000	
진단용X선 발생기	260,675	220,000	
치과진단용X선 발생장치	237,775	198,000 (Panorama)	176,000 (Standard, Portable)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458,875	440,000	
방사선방어시설	239,150	220,000	

요양기관 현황(변경) 통보 방법 개선 안내

- 요양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및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 심평원에서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통보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
- 의료장비 최초 설치 시에는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단, 심평원에는 증빙자료 첨부 생략)에 동시에 신고, 장비양도·폐기·변경시에는 보건소에만 신고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개선사항 안내

-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상 문란의 소지 및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환자시술 전후 사진과 환자동의서와 관련, 그간 의료광고사전심의시 근거자료로써 제출받고 있는 여러 형태의 환자동의서 양식을 통일화하여 2010년 3월 1일 부터 적용기로 함을 안내

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 협조요청

- 접종대상자 : 만성질환자, 만성심혈관질환 등의 질환군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접종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만성질환자 예방접종 안내문> 개별 발송
- 사전예약 및 예방접종 시기 안내

접종대상자	사전예약일	접종시작	접종시준비사항	접종비
만성질환자 (65세이상 만성질환자 포함)	2009. 12. 16~	2010. 1. 18	접종안내문 및 신분증 지참	15,000원 동일

- 기타 :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예방접종 안내

접종대상자	접종안내	접종시작 시기	접종장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	2009. 1월 초 자치단체 홍보	2010. 1. 25 ~	관할 보건소

※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기관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1월 18일부터 접종 가능(접종비 15,000원 본인 부담)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부담 인하관련 청구 방법 안내

- 2010. 1. 1 부터 : 중증환자(등록암환자, 심장질환자, 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을 5% 적용하여 청구
- 단, 등록암환자는 2009. 12. 1로 소급적용할 것이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2009년 12월 진료분까지 반드시 현재대로 본인부담을 10% 적용해서 청구(2009년 12월 진료분 중 본인부담차액은 시군구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환급)
- ※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 계속해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월단위로 분리청구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범위 유권해석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규정
- 방사선사가 레이저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고주파·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됨

심사평가원 2010 상병별 전산심사 확대안내

- ‘심평원에서는 2004년부터 급성호흡기감염 상병을 시작으로 고혈압 등 16개 상병분야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4개상병분야(백선증, 탈구염좌 및 간장, 방광염 및 질염, 위식도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의 외래진료분에 대한 전산심사를 2010년 상반기중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포항모자원과 함께하는 2009 송년의 밤

포항시의사회(회장 김광만)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6시 포항 모자원 2층 다습강당에서 “포항모자원과 함께하는 2009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모자가정세대, 인근독거 어르신, 후원자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와 더불어 그 동안 진료중에 틈틈이 익힌 노래와 악기를 가지고 포항의 사회 중창단의 노래와 문신길·김용섭 회원의 클라리넷 이중주, 박화중 회원의 펜플룻 연주, 심평원 대구지원 직원들의 밴드공연으로 포항모자원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송년회 밤 행사에 포항시의사회에서는 만찬을 준비하였고, 경북의사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서는 후원금을 전달하고, 포사회에서는 장학금, 아웃백 남포항점에서는 선물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2010 신년인사회 개최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신년대화의 자리를 2010년 1월 5일 오후 7시 30분에 포항 필로소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많은 회원과 국악공연을 위하여 소리꾼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만 회장의 신년사와 내빈 소개

후, 경상북도의사회 이석균 회장의 축사에 이어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의사회 중창단의 공연과 판소리 인간문화재 정순임과 정석주 고수의 판소리 공연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중 최고 연장자인 박무근(박비뇨기과의원장) 회원의 덕담과 건배제의, 그리고 지난해 새로 개원한 회원과 새로 오신 봉직회원의 자기 소개 후 회원들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의료기관 모범직원 표창 선정기준 마련

포항시의사회서는 매년 간호학원에 전달해 온 장학금 지급보다는 현재 본회 소속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중 모범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의결하고 모범직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22일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기준을 정하고 병원 업무에 모범이 되는 직원을 매년 4명씩 선정하여 정기총회에서 표창기로 하였다.



경주시의사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심포지엄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황병욱)는 지난 11월 12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1층 강당에서 2009년도 개원의 연수강좌의 일환으로 MDCT의 임상적 응용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경주

및 포항시의사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30분부터 강의를 시작되어 △근골격계 MDCT의 임상적응용(서경진 교수) △흉부 MDCT의 임상적응용(김성우 교수) △북부 MDCT의 임상적응용(김순 교수) △소화기질환의 최신지견(박정배 교수)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28채널 MDCT의 도입으로 검사시간이 15~20초로 줄어들어 방사선 노출도 적고 선명도가 뛰어나며 검사비도 비싸지 않아 경주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7차 확대이사회 개최

지난 11월 24일 오후 7시부터 2009년도 제7차 확대이사회가 감포별미횃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황병욱 회장은 “참석해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리며, 경주시내 신중플루가 현재 소강상태가 되어 감사드리며 연말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두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의협 공제회 가입을 독려하고 환자 내원시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는 2009년도 의사회비 납부 독려, 송년의 밤 행사, 연말 불우이웃돕기 전달, 2009-2010년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 고문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연말 맞아 복지시설 방문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7일 대자원과 18일 예티쉼터를 방문하였다. 대자원 방문에는 산타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볼 수 있었으며, 예티쉼터는 경주시 기독교사회와 함께 방문하였다.

황병욱 회장은 추운 날씨에 조그마한 정성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각각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경주시의사회-동국대경주병원 일요일 종합검진 실시

경주시의사회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2010년 의사 및 가족을 위한 일요일 종합검진'을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로부터 건강검진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대상 : 의사 선생님 및 가족
- 날짜 : 2010년 1월 10일, 24일 / 2월 7일, 21일
(원하시는 날짜 일주일 전까지 예약)
- 추가검진 : 평소 의심 부위에 대한 추가 검진 가능(사전예약)
- 기타 : 예약 인원이 적을 경우, 부득이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예약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건강증진센터
(☎ 054-770-8492, 8490)

안동시의사회

안동시의사회 송년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목환)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6시 30분 천하회식당에서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에는 손장락, 정창근, 최종두, 최유근, 이한양 원로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최근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제4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 개최

안동시의사회와 MD양상블(단장 윤태권)은 지난 2009년 11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안동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를 열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선음악회는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의 무르익는 가을을 맞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과 '사랑이여'로 오프닝송을 시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상록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로 이어졌고, 특별출연한 테너 이광순씨의 '여자의 마음', '그라나다'의 독창과 안동시 여성중창단의 합창으로 이어짐에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등 자선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였다.



구미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이경수)는 지난 2009년 11월 1일 경남 밀양 재약산(표충사) 일원에서 회원 및 가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구미시장학재단 기금전달

지난 2009년 11월 17일 남유진 (재)구미시장학재단이사장에게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후손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장학기금 1천억 조성 계획과 교육특구 지정 등 명품 도시 건설에 앞장서는데 동참하기 위한 기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구미시의사회장배 바둑대회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구미시의사회장배 바둑대회가 지난 2009년 12월 2일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기우회 김종국 회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동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구미시의사회 송년회 개최

지난 2009년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금오산맥에서 2009년도 구미시의사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7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근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이경수 회장의 송년사를 시작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회원님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건배로 송년회를 마쳤다.



희망 이웃돕기 캠페인 성금지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2월 15일 오후 2시 구미시청 광장에서 개최한 '2009 희망 이웃돕기 캠페인 행사'에 참여하여 사랑으로 추위를 녹이는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고문단 송년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사회 고문단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간담회를 지난 2009년 12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사회 고문단과 관내 병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회장 인사와 더불어 종합병원의 회원신고 및 원활한 회무운영에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의사회에서도 적극 지원할것을 전달하였다.

불법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 전개

구미시보건소 주최로 지난 2009년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구미역 광장에서 시민들과 구미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마약류 및 오남용 관련 패널을 전지로 불법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널리 알려 범시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내원하는 환자에게도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기로 하였다.



공단 구미지사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

지난 2009년 12월 17일 오후 7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 개최하는 의약단체 간담회에 이경수 회장과 김학근 기획이사가 참석하여 최근의료현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시행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의약단체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하였다.

영주시의사회

2009년 송년회 개최

영주시의사회(회장 최경렬)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7시 영신 스포츠클럽에서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에서는 2009년도 재무결산 및 일정 경과 보고와 신입회원 소개 등이 있었으며, 최경렬 회장을 비롯한 3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경산시의사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최병국 경산시장, 장유석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장유석 경산회장의 인사말과 이석균 경북회장, 최병국 시장의 축사가 있는 후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경산시의사회는 최병국 시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줄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송년회 밤에서는 손병욱·장기호 고문의 건배제외와 더불어 경품추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산시의사회 재활원 위문

지난 12월 22일 경산시 와촌면 소재 천혜요양원을 방문하여 이웃사랑나눔물품을 전달하고 위로 하였다. 이날 위문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경산시의사회 장유석 회장과 장재혁 정보이사, 이우근 보험이사, 박준만 5반장이 참석하였다.

의성군의회

신임 회장에 이재홍 회원 선출



의성군의회(회장 이건중)는 지난 12월 23일 오후 7시 30분 봉양한우식당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본회 이석균 회장과 정능수 부의장, 의성군의회 이건중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신임 회장에는 이재홍 회원(경북외과의원, 62생)을 선출하고 임기 2년을 시작하였다.

〈신임 임원명단〉

- 회 장 : 이재홍(경북외과의원)
- 부 회 장 : 권영만(권의원)
- 총무이사 : 권순호(안계삼성의원)
- 감 사 : 이건중(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예천군의회

신임 회장에 노영철 회원 선출



예천군의회(회장 장필식)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김서방식당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노영철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장필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신임 회장을 필두로 더욱 화합하는 의사회가 되자' 라며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어 최근 의료현안 논의와 더불어 장학기금으로 예천군청에 100만원을 전달키로 하였다. 신임회장 선출에 있어서는 노영철 회원(64생, 계명대, 예천중앙의원)을 선출하고 임기 2년을 시작하였다.

〈신임 임원명단〉

- 회 장 : 노영철(예천중앙의원)
- 총무이사 : 권규호(예천권병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지역공공병원 6시그마 대회 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200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6시그마 추진 성과 보고대회'에서 금상(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재정구조 혁신과 업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등 총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참가했는데, 포항의료원은 '급식재료비 절감을 통한 병원 수익성 향상'이라는 추진 과제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6시그마 경영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및 포상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팀의 추진 리더에 대해서는 병원 내 혁신 전문 리더로 GB(Green Belt) 인증서를 수여했다.

QI경진대회 우수상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QI(품질향상·quality improvement)경진대회에서 42개 병원 중 2위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한 해 동안 수행한 QI 활동에 대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이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대회에는 적십자병원과 서울시립병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등 총 42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총 69개의 주제로 예선을 치러 최종 10개의 본선팀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포항의료원은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투약원칙 준수 및 집중적인 개선활동 등을 통해 투약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병원 전체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항성모병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 수상



포항성모병원 응급뇌질환 특성화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응급의료유공자 표창에서 전국 28개 응급뇌질환 특성화후보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포항성모병원은 올해 10여 차례 뇌질환 관련 대국민 건강강좌를 개최해 응급뇌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지난 12월 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에 앞서 포항성모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구조지표 A 등급, 과정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등 뇌질환 진료 부문의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최신형 MRI 도입



지난 10월 24일 최신형 MR(자기공명영상촬영) 장비를 도입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세명기독병원은 그동안 필립스사의 intra1.5T를 도입해 운영 중이었지만 한달 평균 900여건 이상

의 MRI촬영 검사가 이뤄지며 환자들의 검사 대기시간이 늘어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신형의 MRI장비(약 15억원)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MRI는 미국 GE사 HDx+1.5T 최신기종으로서 이미지해상도가 뛰어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LIVE SURGERY' 시연

지난 11월 20일 오후 4시부터 사무동 2층 강당에서 무릎분야 권위자인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배대경 교수를 초청, 무릎인공관절수술 Live Surgery를 시연했다.

Live Surgery는 해당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가 실제 수술 시연을 통해 최신 기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랜 임상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선진 수술기법을 지닌 의사들만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라이브서저리는 상호 의료기술을 교류하는 자리는 물론 병원 의료진과 의료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해당 분야에서 입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가 주관한 이날 라이브서저리는 수술실과 강당을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 수술장면을 실시간 중계하고, 병원 사무동 강당에 모인 대구·경북지역의 정형외과 전문의들과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린재활요양병원

도내 유일 산재 재활전문기관 인증

선린재활요양병원이 경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재보험 재활 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북 도내에서는 선린재활요양병원이 유일하게 인증병원으로 선정됐다.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산재근로자가 적정한 시기에 체계적인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인력, 시설, 장비 및 재활 의료 체계를 갖춘 일정 수준 이상 의료기관을 평가한 뒤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이번 평가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이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린재활요양병원 등 10개 병원이 인증받았다.

에스포항병원

개원 1주년 맞은 에스포항병원

뇌질환·척추질환 전문병원을 표방한 에스포항병원이 지난 11월 10일 개원 1주년을 맞았다. 특히 중소병원으로는 드물게 100례 이상의 뇌동맥류 수술을 기록해 국내 의료계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도 포항을 비롯한 경북동해안 의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것과 특히 인근 대도시 병원들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응급환자 발생 시 양 병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즉시 처치하는 등 생명소실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 외국인 근로자 무료 수술

지난 11월 7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강석)는 교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 외동읍 농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태국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262명이 진료를 받고, 진료과정에서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 조위(39세)씨는 초음파상 담낭에 1.5cm 돌을 발견 "담석증"이라고 진단 받았으며, 불교회에서는 이런 그를 위해 자체 임원회의를 거쳐 전액 수술비를 부담하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1월 25일 "복강경하 담낭 절제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수술을 받은 조위씨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 혜택을 받은 것이 상으로 성실하게 생활에 임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암검진·예방 홍보 거리캠페인



지난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안동시내 문화의 거리에서 경상북도와 안동시보건소,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 시범사업단과 함께 암검진 및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시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암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과 암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알리는 한편 암관련 상담을 실시하였다.

안동병원

'신소비 문화' 대상



지난 11월 14일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소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바람직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동병원이 현재까지 20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캠페인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인간의 도리와 가족 사랑 개념으로 인식을 변화 시키며 전국 병원계, 공공기관, 제조업, 유통업, 교육계 등 관련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15년 전부터 휴일·야간 진료 등 소비자 중심으로 펼친 의료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의료산업의 국제적 정세에 발맞춰 '굿모닝 헬스투어'프로그

램을 개발해 의료신사업을 추진,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해외의료관광분야의 개척자 역할을 선도하고 있어 최근 관련계의 호평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안동병원, 중국서 '사랑의 인술' 펼쳐

안동병원이 중국 길림성 장춘시병원센터 분원인 심혈관 전문 구이구(硅谷)병원의 초청으로 지난 12월 14일~16일 2박 3일간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안동병원 심장내과 김건영 박사와 의료봉사팀은 현지병원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치료받지 못하던 심장병 환자 왕밍야오씨(74·여·중국 길림성 장춘시)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 루안엔메이씨(62·여)등 2명을 혈관조영촬영(Angiography)을 이용한 혈관중재적 수술과 풍선확장술을 성공적으로 시술했다. 안동병원의 봉사활동이 중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면서 수술상황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중국 장춘시 위생국은 한국 의료봉사단을 위해 환영만찬을 열고 감사패를 전달과 함께 구이구 병원은 병원간의 지속적인 의료기술과 업무교류를 협약하는 조인식을 개최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

지난 12월 5일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과 공동으로 구미종합사회복지관(경북 구미시 황상동 소재)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의사 3명을 비롯하여 간호사·병리사 등 20여명의 의료봉사단과 10여명의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 회원명이 참여한 의료봉사에서는 내과·정형외과로 나누어 만성질환과 통증을 진찰하고 혈액·소변·심전도·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약 100여명의 주민에게 복용약·연고제 등을 처방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처치료·투약 및 건

강교육을 실시했다. 또 3시간여에 걸친 의료봉사 후 구미제일라이온스클럽은 독거노인·소년소녀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 20가구를 선정해 쌀(10kg)과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과 제일라이온스클럽은 2005년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을 위한 진료비 지원·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CHA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신종플루 예방차(茶) 개발, 병원 내원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구미차병원은 안티에이징센터에서 개발한 신종플루의 예방을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신종플루 예방차”를 11월 16일~17일 양일간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신종플루 예방 차는 캐모마일과 인동꽃이 주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모마일은 서양 허브로서, 독일, 스위스 등지의 유럽 대체의학에서는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병원에서 항생제 대신 캐모마일 차를 처방하거나 차를 끓인 물을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차병원 안티에이징센터 정세연 교수는 “차 안에 함유된 인동꽃이 해독 및 해열 성분을 갖고 있어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도움을 주며, 캐모마일은 인후통, 기침, 객담 분비를 진정시켜 주어, 예방을 위해서 평상시에 자주 마시면 좋



다. 더불어 플루 증후가 이미 있는 사람은 플루 차에 프로폴리스 액을 한 두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7회 QI 경진대회 개최

지난 11월 17일 오후 3시 의료진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고객만족을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개선 등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QI 경진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고객만족향상 부문, 자원관리 부문, 질 개선 부문으로 나누어, QI활동에서는 병원경영 및 각 부서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서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목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계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구미차병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진료의 질 향상으로 체계적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대응력을 높이고, 고객서비스 향상과 병원 업무개선 활동을 위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간호팀이 외래 발표한 "진료예약부도를 감소활동을 통한 고객관리"가 최우수상을, 신생아실의 "정맥주사관리를 통한 유지기간 증가 및 재 삽입률 감소 활동"이 우수상, 원무팀의 "고객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어병동 "복부마사지를 통한 변비완화증진"이 장려상을 받았다.



남성건강 캠페인 시민건강강좌 열어

지난 12월 3일 남성건강주간을 맞아 지역주민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뇨기과 무료 건강공개 강좌를 개최 하였다.

이날 대한남성과학회와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주관으로 서준형 교수의 "조루증의 진단과 치료", 김건남 교수의 "남성 질환의 진단과 치료" 강좌로 향후 남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정보와 치료방법을 알리기 위해 남성건강 캠페인을 펼쳐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열띤 강의를 하였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 가져

지난 12월 17일 타국에서 쓸쓸히 보내는 다문화가족모임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초청하여 환자를 위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다문화가족은 "연말에 고국의 가족을 그리면서 쓸쓸하게 지낼 시기에 구미차병원에서 매년 이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어 감사드리며, 다문화가족에게 무료검진을 해 주는 등, 관심과 온정을 주어 한국생활에 빠른 적응과 희망이 있다"고 전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은 처음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가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툰 말이지만 환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다. 또한, 조수호 병원장은 지역 농민을 돕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100여 종류를 기념품으로 준비하여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고 앞으로도 타국에서 쓸쓸히 보내는 다문화가족을 배려하겠다고 하였다.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국가 재난 대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실 및 병실을 발 빠르게 분리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적극적인 대책수립 및 진료를 실시하여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일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 진료실 정상진료 등 총력대응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내원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도청, 구미시청, 구미시 보건소 등 관계자들은 최근 구미차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현황, 임시진료소, 전담인력 및 병동 운영 전문의 진료 현황, 감염예방 활동, 검사능력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고 방문자 모두가 치료거점병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하였다. 특히, 진료시 별도의 공간에서 의심환자에 대해 마스크 지급 착용, 손세정제 지급사용 등의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문경제일병원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FMC 구축



문경제일병원과 KT경북법인사업단은 지난 11월 25일 전국 지방 종합병원 중에서는 최초로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FMC(Fixed mobile convergence)를 구축하였다.

KT 경북법인사업단은 이날 문경제일병원 이희섭 병원장과 KT경북법인사업단 곽윤학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제일병원에서 FMC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유무선 통합서비스인 FMC는 하나의 휴대단말기(스마트폰)를 가지고 근무중인 사무실이나 해당 건물내에서는 구내전화기로, 외근이나 퇴근후 외부에서 휴대전화기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제일병원은 FMC 서비스 구현을 위해 본관에 구내교환기(IP-PBX)를 도입하고, 무선 중계기(AP)를 설치하여 무선 인터넷(WiFi)전속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내 사무실과 입원실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능을 확장하게 되면 휴대단말기를 통해 메신저와 문서결재 처리, 진료차트보기, X-RAY 영상 전송 등 다양한 작업을 병원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병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시몬정신건강병원

시몬정신건강병원, 2차 의료기관 최고 등급

칠곡군 왜관읍의 시몬정신건강병원이 최근 기존의 폐쇄적 병동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친화적 공간을 조성한 뒤 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몬정신건강병원은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증축하면서 대부분의 벽을 유리로 바꿔 일조량을 대폭 늘렸으며 창살도 제거해 교도소와 같은 정신병원의 이미지를 없앴으며, 또 병원 앞에는 자연 경관의 산책로 등을 만들어 환자들이 언제나 산책을 즐기며 병실에는 24시간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차 의료기관으로는 최고 등급인 G2 평가를 받았다. G2 평가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정신의료기관들의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산정해 평가하는 등급으로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울릉군보건의료원

야외 엘리베이터 설치

울릉도에서 유일한 병원인 울릉군보건의료원에 환자와 노약자들을 위한 야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그동안 진입도로의 경사가 심하고 서민환자들의 교통수단인 버스의 진입이 어려워 환자들이 도로에서부터 걸어서 병원을 찾는 등 불편이 계속돼 왔으며,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병원까지 차량진입이 어렵고 경사면 진입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환자들이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오며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설치 공사에 들어가 완공되어 엘리베이터로 지상 30m를 올라간 다음 바로 연결된 10m의 다리를 걸어서 병원 정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포항시의사회 신년회

2010. 1. 5 필로스호텔



- 1 신입회원소개
- 2 포항시 의사회 중창단의 공연
- 3 인간문화재 정순임과 정석주 교수
- 4 박무근 회원의 건배사



경주시의사회 송년회

2009. 12. 29 경주 힐튼호텔



- 1 경주시 의사회원 단체사진
- 2 행운권 대상 김영수 회원
- 3 이봉구 심사위원장의 심사결과 발표
- 4 ~ 9 경주시 의사회원 및 가족들의 장기자랑





구미시의사회 송년회

2009. 12. 10 금오산맥



경산시의사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2009. 12. 10 대구 그랜드호텔



- 1** 경상병원의 경산시의사회 발전기금 전달
- 2** 손병욱 고문의 건배사
- 3** 허영구 회원 가족
- 4** 박지순 회원 가족
- 5** 김진업 · 박준만 · 장재혁 회원
- 6** 김영석 회원가족





» 지역의사회 탐방

구미시의사회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산군과 구미시가 행정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의사회도 단연 통합되어 구미시의사회로 발족되었다.

구미시는?

도립공원인 금오산과 천생산 태조산등이 도시를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낙동강이 도심 중앙을 흐르는 천혜의 자연적인 환경의 아름다운 도시이다.

금오산을 바라보면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거인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와불상(臥佛像)이라고도 한다.

또한 금오산은 거인의 눈이 북두칠성을 응시하고 있는 형상이라 해서 조선조 초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무학대사가 이 산아래를 지나다가 균황이 날 산인고로 거인이 날 것으로 예언하여 귀인과 대작(大箭 큰벼슬)이 많이 배출되었다 한다.

구미시의사회는?

구미시의사회의 역사를 거슬러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면 경북 선산면에서 1939년 11월 1일 최초로 박호용(선산 인제의원, 한지의) 회원께서 개원하

였고, 1950년 9월 1일에 정OO(정의원, 한지의) 회원과 서석능(대동의원, 한지의), 김성환(금성의원, 대구의전 제14회) 회원이 개원하였고, 그해 10월 8일에는 박상대(낙산의원, 한지의) 회원이 개원 후 이상일(수양의원, 서울의대), 장OO(영생의원, 일본 여의의전) 회원 일곱분으로 구성되어 경상북도의사회 선산분회라는 명칭으로 발족되었으며, 그후 1962년 12월 정순용(정의원, 경북의대 25회) 회원이 개원하였고, 명문화된 회원이나 규정 없이 당시의 사회적통례에 따라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1년에 1회의 총회와 긴급문제가 발생하면 비상소집을 하는 등 년 1~2회 정도 모임을 가졌다.

그 이후 경북의사회 선산분회는 선산군내 9개면과 구미면이 합쳐서 선산군의사회를 발족하였고, 최고령자부터 윤번으로 회장직을 맡아 보기로 하여 초대회장으로는 박상대(낙산의원) 회원을 임명하였다.

그후 1963년 1월 1일 구미면이 구미읍으로 승격되



이경수 회장을 비롯하여 경북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회원수 413명(개원 210명, 근무 184명, 공보의 12명, 전공의 1명, 휴직 6명)에 이르고 있다.

었고, 故최치교(보성외과의원, 경북의대 27회), 박재호(대산외과의원, 경북의대 27회), 경광수(중앙산부인과, 고대의대), 하용규(하용규의원, 부산의대), 최일형(공단의원, 서울의대) 회원이 있었으며, 면단위에는 선산군 고아면에 이연송(고아의원, 한지의) 옥성면에 김광정(옥성의원, 한지의) 회원과 구미순천향병원(김정완원장, 서재주부원장)과 김중자(선산보건의소장) 회원이 재직하였고, 회원이 증가되어 일년에 한번쯤 1박2일정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1978년 2월 25일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의사회에서 구미시의사회로 완전 분리되었고, 1979년 5월 1일 선산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그해 종합병원인 순천향구미병원이 개원하였다. 1989년 2월 구미고려병원이(현 구미강동병원)이 개원하였고,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산군과 구미시가 행정적으로 통합됨으로써 의사회도 단연 통합되어 구미시의사회로 발족되었다.

그해 4월 구미중앙병원(현 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이 개원하였고, 회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현재 이경수 회장을 비롯하여 경북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회원수 413명(개원 210명, 근무 184명, 공보의 12명, 전공의 1명, 휴직 6명)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

대내적으로는 구미시의사회장배로 골프대회는 종합병원 회원과 개원회원의 실력을 겨루며 친목도모와 우의를 증진하고, 회원간의 각종 동호회 모임인 바둑, 합창단, 골프, 등반 등 매월 정기 모임을



구미시의 자랑

첫 번째 신라시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곳으로 해동(海東)최초의 가람인 도리사(桃李寺)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을 꽃피운 지역으로 야은 길재(台隱 吉再) 강호 김숙자(江糊 金叔滋), 점필제(店畢濟), 김종직(金宗直)등 학자와 사육신 하위지(河緯地), 생육신 이맹전(李孟專)한말 의병대장 허위 등 술한 우국지사를 배출하였고, 근래에 와서는 과감한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새마을 운동을 창시하여 국

가 경제의 기틀을 다진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두번째 구미국가산업단지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전자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동남권역의 주요 산업도시와 연계되어 산업벨트화를 이루고 있으며, 온화한 기후, 풍부한 수자원 등 최적의 입지여건과 완벽한 지원체제 및 편리한 사업기반 시설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공업 중점 육성 공단으로 21세기 미래정보사회를 자신있게 열어 가고 있는 도시이다.



가지고 있으며, 년 2회 총회를 개최하여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며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반 회 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원활한 회 무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구미시 지역기관단체장의 친목과 업무협조를 위 한 금오회와 구미산하 보건의료기관단체장 모임을 가지고 있으 며, 대구지검김천지청과 의료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개 최하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사업으로는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와 청소년 수형자 문신 제거 수술을 봉사하고 있으며, 년1회 저소득층 노인 무료개 안수술 협조와, 구미시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 며, 관내 복지관의 독거노인의 경로사업,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 말 이웃돕기성금 지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적극 후원 및 유 대강화를 지속할 것이다.

(정리 : 공보이사 오춘석, 사무국)

◆ 구미시의사회 역대회장

- 초대 박상대(낙산의원, 한지의)
- 2대 정순용(정의원, 경북의대)
- 3대 최일형(공단의원, 서울의대)
- 4대 최치교(보성외과의원, 경북의대)
- 5대 박재호(대산외과의원, 경북의대)
- 6대 성기태(성기태정형외과의원, 경북의대)
- 7대 영광수(중앙산부인과의원, 고려의대)
- 8대 ~ 9대 김홍조(김홍조외과의원, 경북의대)
- 10대 김옥배(김옥배정형외과의원, 경북의대)
- 11대 김종국(경북정형외과의원, 경북의대)
- 12대 장의현(지앤미비노기과의원, 경북의대)
- 13대 김동욱(조은아이의원, 경북의대)
- 14대 이경수(이경수내과의원, 경북의대)

◆ 임원명단 : 회장 이경수, 부회장 류성훈 · 김도권 · 박래경 · 김덕실, 기획이사 김학근, 재무이사 전우성, 학술이사 황종현, 법제 이사 박정돈, 의무이사 김철기, 보험이사 이숙영, 공보이사 오춘석, 정보이사 박손원, 무임소이사 서상일 · 지성구 · 김병용 · 장태영 · 권오득, 감사 신진식 · 조충래

구미시의 테마관광코스

- 1) 박정희대통령생가권
박정희대통령생가 → 용산허위기념관 → 지주중류비 → 금오 산도립공원
- 2) 불교문화권
해운사 → 약사암 → 죽장사 → 원각사 → 대둔사 → 전모레 가정(모례원) → 도리사 보천사
- 3) 유교문화권
채미정 → 선산향교 → 금오서원 → 낙봉서원 → 인동향교 → 동락서원 → 월암서원
- 4) 전시 체험관광
시립민속관 → 유비쿼터스체험관 → 농경유물전시관(선산) → 옥성화훼단지 → 옥성자연휴양림 → 금오민속박물관(무을) → OK곤충농장(옥성)

주요 음식점

거제복집(462-0096), 금오산맥(452-1818), 동해해물탕(452-0900), 청기와한정식(456-5161), 한촌설렁탕(456-6113), 다미일 식(457-9035), 금오산성숯불갈비(457-75010) 등.

금오산도립공원

영남팔경의 하나인 금오산은 해발 976m로 각종유적이 있고, 구미관광의 상징이자 구미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명산으로 기암괴석과 수림, 구미시를 한눈에 볼수있는 전경으로 연중 수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이 기도 하다.





» 지역의사회 탐방

영덕군의사회

영덕군의사회는 모두들 힘들어 하는 개업 현실이지만, 회원들의 동료의식이 살아있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경북의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덕군의 일반현황

영덕군은 1개읍(영덕읍) 8개면(강구, 남정, 달산, 지품, 축산, 영해, 창수, 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44,000명으로 추산된다. 군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포항과 북쪽으로는 울진, 서쪽으로는 청송과 영양과 접해있다. 군민들의 생활권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뉘는데 남부권은 영덕·강구·지품·남정·달산으로, 북부권은 영해·축산·창수·병곡으로 구분된다.

의사회 연혁

1970년경부터 모임이 있었으며 故 김찬우 국회의원(제일의원), 김병만 선생님(경북의원), 고택림 선생님(성모의원), 윤원달 선생님(덕인의원)께서 회원으로 계셨으며, 19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의 40대 선생님들이 개업하기 시작했다.

현재 영덕읍에 병원으로는 제일병원이 있으며, 개원의는 서창수외과의원(서창수), 영남의원(예호열), 영덕제통의원(권육환), 영덕파티마의원(이규중), 영덕성모정형외과의원(이근수), 서울연합의원(정희준), 영덕경대안과의원(하태욱)이 있다.

강구면에는 강구외과의원(강래균), 신세계의원(최영규), 강구성모의원(성상욱), 삼성의원(우성욱)이, 남정면에는 은솔의원(우성구), 축산면에는 동해의원(홍경표), 영해면에는 영덕아산병원과 경북의원(김병만), 권외과의원(권영대), 예주한솔의



원(안관혁), 영해성모내과의원(김희식)이 있다.

의사회 모임은 회원 수가 적다보니 가족적이며 두 달에 한번정도 모인다. 모임 장소는 영덕, 영해, 강구에서 돌아가면서 모이며 회원 상당수가 포항에서 출퇴근 하는 관계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다 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끔은 포항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그때는 회식자리가 조금 길어지기도 한다.

의사회 고민은 원거리 출퇴근하는 회원이 많은 관계로 지역민과의 정서적 공유가 조금 소홀한데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개원하는 신입회원들의 의사회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덕군의사회 회장은 영덕군에 개원한 순서대로 2년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회장의 어려운 점은 없지만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해 모임을 주선하지만 회원들의 참석 저조로 모임이 너무 단출해지는 것이다.

(정리 : 회장 예호열)

▣ 임원명단 : 회장 예호열, 총무이사 최영규

지역의 가볼만한 곳과 특산물

영덕군은 경북 동해안의 중심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바다와 강과 산이 어우러진 곳이다.

7번 국도를 따라 남으로 장사해수욕장부터 북쪽으로 고래불해수욕장 까지 이어지는 해안은 그 자체가 관광지이다. 특히 강구에서 축산으로 이어지는 918번 지방도(일명 강축도로)는 드라이브하면서 바다 냄새를 폐포까지 들이 마실 수 있는 해안 도로이다. 대게의 집산지로 유명한 강구항에서 출발하여 축산으로 가다보면 창포마을 등대공원과 게다리 모양의 등대, 풍력발전단지, 대게원조마을(축산면 등대, 풍력발전단지, 대게원조마을(축산면 경정리, 차유마을)등을 볼 수 있다. 병곡면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은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긴 백사장(8km, 명사 20리)을 자랑하는 곳으로 울창한 송림(松林)이 함께 있어 해수욕장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다.

달산면에 있는 팔각산(八角山)은 628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산 이름 앞의 숫자만큼 기암괴석이 많으며 푸른 동해를 조망할 수 있다. 그리고 옥계계곡은 팔각산과 동대산의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깊은 계곡으로 풍광이 빼어나며 여름이면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장이니 만큼 계절별로 먹을 것도 다양하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영덕복숭아는 영덕의 대표적 농산물이다. 영덕 서쪽 낙동정맥의 맑은 물들이 모여 영덕을 가로질러 강구로 흐르는 오십천에서 나는 은어(銀魚)는 그 맛이 수박향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을에는 송이가 유명하다. 솔밭에서 나는 자연산 송이는 독특한 맛과 향이 나는 무공해 건강식품이다. 송이는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겨울에는 영덕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게가 유명하다. 대게를 먹을 수 있는 곳은 강구항에 대게집이 많으며 그 외에도 남정면 장사부터 병곡면까지 해안가 어느 식당에서나 먹을 수 있다. 제일 싸게 먹는 방법은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대게를 구매하여 집에서 찜통으로 찜먹는 방법이 있다. 대게 찌는 방법은 재래시장 상인들로부터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

영덕군의사회는 모두들 힘들어 하는 개업 현실이지만, 회원들의 동료의식이 살아있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경북의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을 접하고...

얼마 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 발언은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만든다.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의료사업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이란 발언은 과연 그것이 한 나라의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인지를 의심케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생각하는 만큼 말한다 고들 한다. ○눈엔 ○밖에 안 보인다는 말도 좀 과격하긴 해도 같은 말일 게다. 유독 의료계에 약감정이 있어 한 발언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의식주는 해결해야 하니 최장관의 눈엔 모든 직업인들이 윤리 따윈 허울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것쯤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좀 그렇지만 오늘도 속 아프고 설사를 하는 인천에선가 다니러 온 분이 내시경을 포함해 검사를 할 요량으로 속을 비워 병원엘 찾아 왔다. 하지만 내시경 할 때는 안 된 것 같고 내시경으로 진단할 배도 아닌 것 같아 음식 조심 시키고 약 며칠 분 드시면 될 거라며 안심을 시켜 보내드렸다.

우리는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도 의료는 특수성이 있어 몸은 내 것(소비자의 것)이나 자신이 알기 힘들고 일반 물건과는 달리 소비자가 의료를 선택하기가 곤란해 공급자인 의사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의사는 특별히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교육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앞의 환자 이야기도 우리 동료들이 들으면 들어나마나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최장관과 같은 지식과 경제논리를 가진 분이 더 계실까봐 하는 소리다.

요즘 의료보험공단에서 낸 광고를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땅에 서양의학이 들어온 지 100년, 이제 우리의 의료 제도를 그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 뭐 이런 내용이다. 서양의 의료가 들어 온 지 100년,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 때문인가?

그들의 선전대로 의료보험공단 덕분인가?

의료보험공단이 무언가 생색을 내고 싶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들은 그런 식으로 남의 희생과 노력의 대가를 자기들의 공인 양 빼앗아 가도 되는 것인가?

과연 이 땅은 최장관식 말대로 최소한의 윤리도 필요 없이

자기들에게 덕이 된다면 양두구육을 해도 되는 나라인가?

이야기를 하려면 길겠지만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한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주자는 눈물어린 호소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수가를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으로 의료계가 대승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를 우선 받아들여 시작한 것이 좋던 싫던 이 땅의 의료보험의 역사이다.

과연 이것이 의료보험 공단이 마음먹은 일이며 그 이후 진행과정은 공단의 노력 덕분인가?

선진국의 문턱에 선 오늘 의료계 또한 부단한 노력으로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되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수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한 옛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저수가의 구조속에서 의료의 발전 또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막대한 유지비와 비효율을 지적받는 보험공단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분투하는 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을 슬쩍 자기의 공처럼 돌리는 행태도, 하긴 최장관의 논리로 보면 또 지금까지의 고자세의 관료와 정치인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도 없겠다.

‘백성을 폄하하는 관리는 엄벌에 처하고 임금을 험담하는 백성은 용서하라’ 는 세종대왕의 말씀이, 정치가만 제 역할을 해주면 국가 브랜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을 안팎으로 받고 있는 요즘이라 더욱 간절히 생각나는 때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모두 동물과 같이 자손을 퍼뜨리려는 종족번식의 본능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물학자의 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도 없고 정확하지도 못하다.

최경환 장관께서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건전한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는 발언을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재왕 (본지 편집위원장)

겨울철 건강관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황현규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황현규입니다. 경북지역의 각급의료기관에 계신 선배님, 동료, 후배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면호번호 5****입니다. 이번 제36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에 겨울철 건강관리 분야에 대하여 진료현장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의뢰를 받고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클럽을 다니거나 수영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체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설 뿐 시작조차도 못하거나 설령 시작한다 해도 며칠 못가서 흐지부지 해진 적이 수없이 많으실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고, 헬스클럽에 다니려 하니 정기적으로 일정에 묶이는 게 적성에 안 맞고, 마땅한 운동이 없습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중년의 시기에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활기찬 노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고민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생활 내지는 진료실 밀착형 운동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면 운동량이 시나브로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며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봅니다. 우선 출근 시간입니다.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하는 분이라면 병원에서 2~3 km 떨어진 곳에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출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서 출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면 20~30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쁜 출근시간에 20~30분이 아깝고, 귀찮으시지만, 이내 여유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면 가히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매일 하면 금방 지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끼는 거죠.

아침 병동회진입니다. 어제 입원한 환자가 열이 떨어졌나 궁금해서 한걸음에 진료실을 나섭니다.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각층마다 서는 바람에 속이 터집니다. 에잇... 전공의 시절 한걸음에 올라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야겠다. 7층 병동을 두 달간 매일 오르내리면 지상 250미터 되는 63빌딩을 7번 정복하는 셈입니다. 처음 같이 올라가며 혁혁대던 전공의가 두 달이 다 되어갈 때쯤 되면 숨소리가 훨씬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 진료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기지개 한번, 일어났다 앉아보기는 어떠신지요. 전공의 3년차 수련 받던 시절 외래에 참관 했을 때의 일입니다. 청진기를 꺼내시는 교수님께서 별떡 일어나셔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서 호흡의 리듬에 맞추어 숨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스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름에는 스키를 타지 못하시지만 이미지 트레이닝과 함께 up & down 스키 기초체력 단련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진료실에서 청진을 할 때면 가끔 스승님의 모습이 떠올라 혼자서 빙긋이 웃으며 일어난답니다.

오전 진료는 잘 마쳤습니다. 맛있는 점심에 커피 한 잔, 피곤이 몰려옵니다. 인터넷뉴스에서 눈을 떼기 어렵지만 잠시 15분이라도 한숨 청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진찰대 위에 누워 다리 짝 뻗으시고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실 틈을 안주시는 것은 아닌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선수가 무릎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1년 정도를 쉬게 한 것은 감독의 결단이었습니니다.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보입니다. 퍼거슨감독이 입장이 되셔서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지요. Stop there! Relax. Take a nap for 15 minutes.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게 되면 퀘스퀘 아이들과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공부하느라 수고한다는 말을 하고 한번 안아주어야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입니다. 병원에 올 때처럼 20분쯤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보니 도착할 때쯤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오늘은 아이와 배우자에게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올 때 스쳐 지나가던 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나가서일까요. 내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걸어와야겠습니다.

요즘, 저탄소, 이산화탄소배출감소를 위한 에너지기후 시대에 국가간 협력과 차세대 녹색혁명을 통한 주도권을 잡고자 국가마다 노력이 한창입니

다. 진료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위에서 말씀드렸던 노력들은 녹색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실천지침이 될 것입니다. 신발에 내장된 칩과 전력저장장치가 잉여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입을 창출하고, 칩에 저장된 도보거리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고,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보속도와 발의 형태, 체중의 변화, 혈압 및 혈당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건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법은 그런대로 수궁이 가지만, 영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또 설령 시작한다 해도 금방 시들해질 것 같습니다. 이일을 어찌해야 하나요. 왜일까 또 한참을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수입, 진료실적, 차종, 아파트 등 물질적인 것을 평가의 잣대로 삼지 우리의 건강한 삶이나 정신적인 풍요로움, 영혼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조언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자칫 낙오자로 비추게 되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없게 될까봐 불안하게 됩니다. 마치 학교 성적이 우리의 인격이며 모든 것을 대변하였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의 평안, 건강한 삶이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 현대생활의 분주함이 일률적으로 매겨주는 허상의 우선순위에서 탈출할 때가 아닌지요. 우리 안의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숲 속을 걸으면, 잠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면, 억압되어 울고 있던 마음속의 어린아이가 미소 지을 텐데요. 이것도 성적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성적을 매기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요. 이런 평화로운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이 느낌은 자연스럽게 넘쳐서 진료실 안으로, 병동의 환자에게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진료실적이나, 행복감, 가족의 평화 등이 한 묶음으로 다가올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얼떨결에 맡은 총무가 7년이 되었다.

의사회 산악회모임...

2002년 9월인가 산악회를 만든다고 하는 자리에 의사회 총무라서 별 생각 없이 참석했다가 총무를 맡으면서 시작한 포항시 의사산악회 모임이 2009년 말로 86회 산행,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회장님은 몇 번 바뀌었지만 총무는 항상 유임되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

포항 홀아비 생활을 수년째 하다 보니, 토요일 대구 갔다가, 일요일 새벽 5-6시에 일어나 산행하기 위해 포항으로 오는 요란을 떨기도 했다.

학창시절에도 등산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무슨 등산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른 사람들 따라 산행을 하는 정도였고, 포항에 와서 고등학교 동창회 산악회에 한때 열심히 다니기도 했다. 산은 좋아하기는 해도, 혼자 무슨 산에 가 봐라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회원 수는 몇 명 안 되어도 산악회를 꾸려 나가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 교수들이 계셔서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골프에 밀려서, 산악자전거 등 다른 레포츠에 밀려서, 팍팍한 의료환경 때문에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젊은 회원들이 많아져서, 회원 수가 좀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 들 처지에 놓인 의사회 산악회 동호회가 언제까지 유지 될지 장담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연, 지연, 나이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어울리게 해주는 산의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산악회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의사회가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뭔가? 의사회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즈음이다. 의사회 회무에 얼마간 관여를 해온 나 자신도 자문해 오던 질문이다. 요동을 치던 지난 수년간의 의료현실에서, 그냥 개원을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 나 혼자만의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17년 동안 지지부진 하던 개원을 그만두고, 후배가 경영하는 병원에 들어왔다.

30여 년 전 포항에 처음 와서 진료했던 여학생이 중년이 되어 입원실



전 민
인성병원(포항)

에서 나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버린 환자 어머니를 보고, 막연한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산행하는 날이다. 눈 덮인 겨울 산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모든 상념을 털어버리고 산으로 가자!

저녁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산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신정 연휴를 맞아 집에 다니러왔던 딸과 사위 때문에 잠시 북적거렸던 집이, 그들이 떠나고 나자 마치 폐가가 된 듯 적막 속으로 가라앉는다. 며칠 동안 무슨 축제기간이라도 된 듯 들떴던 아내와 나는 아이 내외가 떠나자마자 갑자기 병어리라도 된 듯 아무 말이 없다. 오래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란 그리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도 아니건만 나는 웬지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가까스로 입을 연다.

“우리 집, 참 따뜻하지.”

아내가 고개를 돌려 베란다 통유리 너머 겨울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나목들을 바라보며 엉뚱한 대답을 한다.

“세월이 정말 빠르지요.”

나도 지금 그런 감정의 회오리 속에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외면했던 말인데, 아내 역시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 보다.

“정말 그래,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아.”

나는 비록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조금씩 쇠락해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 편 딸아이가 예쁘게 성장하고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기쁘다.

“영민이가 애기를 낳으면 세월은 더 빠르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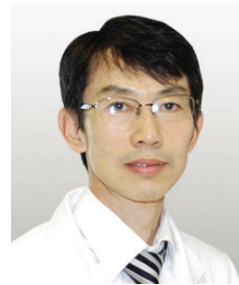
아내의 세월은 벌써 또 한 세대를 건너뛰어 더욱 빠르게 흐른다.

나의 묵묵부답으로 다시 침묵으로 빠져든 우리는, 우리가 처음 딸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철없고 힘들고 바빴던 과거로 잠시 되돌아간다.

“영민이를 기를 때, 우린 너무 모르고 바쁘고 힘들었어요.”

나는 이 순간 내가 좀 더 아내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속마음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 이제 우리는 빈 동지의 쓸쓸함과 나이가 들어가는 스산함,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서글픔에 대해 서로 따뜻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싶은 것이다.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떠난 지가 벌써 8년이나 되었고, 내



서역수
동국대 안과 교수

부양가족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이 1년 가까이 되어가기에, 오롯이 우리 둘만의 삶의 쓸쓸함과 고적함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쓸쓸함이 평화로움으로 고적함이 여유로움으로 많이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그들이 다녀와서 떠난 뒤의 허전한 기분은 쉽게 수습이 되지 않는다.

다시 어색한 침묵을 피하여 아내는 피곤을 핑계로 침실에 들어가고, 나는 내 서재로 들어와 정체를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감 때문에 이 책저 책을 뽑아들어 조금 뒤적이곤 다시 제자리에 꽂는다. 짧은 겨울 오

후 햇살이 스러지면서 밀려오는 어둠과 허전함이란 심리적 상태가 함께 어우러져 집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는다.

저녁 끼니때가 되었기에 아이들과 함께한 풍성하고 행복했던 남은 음식들을 데워 단지 습관적인 한 끼의 식사를 때운다. 그 무미한 음식을 삼키며 우리는 여러 번 나누었던 대화를 또 다시 반복한다. 딸아이가 결혼과 함께 더욱 행복해하는 것을 감사해해야 한다느니, 늙어가며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느니, 앞으로 그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둘이 잘 헤쳐 나갈 거라느니, 그리고 비록 많은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크게 나쁘진 않았고 또 남은 삶도 그럴 것이라고.....

식사 후 보지도 않는 TV를 이리 저리 돌리다가, 늙은이처럼 전에 없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침실 차창으로 보름을 갖 지난 투명한 겨울 달빛이 방안 가득 밀려온다.

가냘픈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당신이 커피를 끓이고
나는 빵을 굽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어느 초저녁
붉게 물든 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서야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이 왔겠지요.
그것으로 그뿐, 이제 이곳에는 더 오지 않을 것.
우리는 덧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커피를 끓이고, 빵을 굽겠지요.
당신이 나를
내가 당신을
마당에 묻어줄 날이 있을거라고,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나누겠지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나를 아니면 당신이
마당에 묻어줄 때가 마침내 있게 되고
남은 한사람이 커피를 훌쩍훌쩍 마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는 끝나게 되겠지요.

삼십 년 가까이 보아온 잠든 얼굴은, 이제 약간 주름지고 흰머리가 제법 많지만, 그래서 더 친숙하고 또한 가슴 아프다. 나는 이 사람과 삼십년 가까운 세월을 한 아이를 기르며 애증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다는 것이 애잔하고 신비스럽다. 또 앞으로 남은 생을 보다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서재로 건너와 낮에 뒤적였던 시집에서 일본 시인 토미오카 다에코의 시를 다시 읽어 본다.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

_ ARTURO TOSCANINI 1867-1957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휘자를 한명만 고르라면 단연코 토스카니니가 가장 높은 추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지휘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 덕목을 골고루 갖추었던 모범적인 인물이었으며, 악보 속에 숨어있는 음악의 생명력을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혼돈의 시기에 지휘자가 지향하여야 할 이정표를 제시한 진정한 마에스트로였다.

한때 음악애호가들 사이에서 푸르트벵글러는 영감이 충만한 전설적인 대지휘자로 추앙하면서 토스카니니는 군악대장이라느니 음표공장장이라느니 따위의 근거 없는 말로 부당한 폄하를 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푸르트벵글러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시기하고 또한 평생토록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대선배가 바로 토스카니니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토스카니니는 푸르트벵글러보다 20년 연상이다.) 이러한 평가는 그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토스카니니는 1867년에 이탈리아의 북부에 위치한 파르마(피렌체와 밀라노의 중간지점)에서 출생하였는데, 이곳은 오페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도시로서 베르디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토스카니니는 평생 베르디의 음악에 큰 애정을 가지고 뛰어난 연주를 하였으며, 그가 지휘하는 자신의 오페라 ‘팔스타프’를 직접 본 베르디가 너무나 훌륭한 연주에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지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음악 신동으로 소문났던 그는 파르마 음악원을 졸업한 뒤에 19세의 나이로 오페라 악단에 첼리스트 겸 합창 부지휘자로 입단하였다. 얼마 후 브라질에서의 ‘아이다’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때 지휘자와 악단간의 불화로 공연 직전에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를 대신하여 부지휘자가 지휘를 하려 했으나 청중들로부터 심한 야유를 받아 퇴장당했고, 이어서 지휘봉을 잡은 합창 지휘자도 역시 쫓겨나 버렸다. 이렇게 되자 평소 60편 이상의 오페라의 스코어를 모두 외우고 있다고 소문이 나있던 토스카니니에게 지휘의 기회가 돌



곽규호
포항성모병원 신경과 과장

아왔고 다급해진 극장 측에서는 어린 그에게 지휘를 맡겼는데, 토스카니니는 지휘대에 올라가자마자 악보를 덮어버리고는 끝까지 암보로 리허설 한번 없이 이 대곡을 성공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일순간에 촉망받는 스타 지휘자가 되었다.

이후부터 토스카니니는 본격적인 지휘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여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 1892년에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이탈리아 초연을 지휘하였고 같은 해에 레온카발로의 ‘팔리아치’를, 1896년에 푸치니의 ‘라보엠’을 세계 초연하는 등 오페라 지휘자로서 확고부동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베르디, 푸치니 등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는 이들의 작품에 특히 애정이 많아 훌륭한 공연을 많이 하였으며,

푸치니와는 각별한 친구 사이로서 ‘투란도트’를 포함한 여러 작품들을 초연하기도 하였다. 또한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여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수차례의 오페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고 1928년에 동 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되어 1936년까지 재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나갔다. 1930년에는 완고한 독일계 지휘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로이트 공연의 지휘자로 초빙되어 2년을 연속 지휘하면서 청중에게서 열렬한 대한영을 받음으로써 유럽 전역에 걸쳐 명실 공히 최고의 거장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게 되었다.

그러나 강직하고 타협할 줄 몰랐던 그는 파시즘을 극도로 혐오하여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자 바이로이트에서의 지휘를 거부하였고 잘츠부르크 축제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공연을 시작할 때마다 무솔리니 찬가를 연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여 무솔리니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파시스트들에게 둘러싸여 린치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 스위스로 망명하였다가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때 그를 위해 창단된 NBC 교향악단과 은퇴할 때까지 무려 17년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수많은 공연을 지휘하고 많은 음반들을 녹음하다가 90세 생일을 두 달 남겨둔 1957년 1월 16일에 운명하였다.

토스카니니는 혁신적인 일들을 감행하였던 오페라 지휘자였다. 그가 처음 오페라 극장에 진출할 때만 해도 오페라는 가수 중심의 무대로서 지휘자는 단지 보조적인 기능만 수행할 뿐이었으나 토스카니니는 이러한 관습에 과감히 도전하여 그 당시의 관례이던 상연도중의 성악가들의 앙코르를 일절 금지시켰고, 그들의 독자적 해석을 철저히 억제하여 지휘자의 의도대로 밀고 나갔으며, 청중들에게도 풍성한 귀부인의 드레스나 모자를 착용하면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지각하는 사람들도 입장을 시키지 않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단의 조치들은 가수와 청중들 모두에게 대단한 저항을 받았으나 토스카니니는 전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으며,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던 라스칼라 극장에서는 재임 1년 만에 예술감독 자리를 사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바그너의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렸는데, 몇몇 작품들은 이탈리아 초연이었고 1900년 12월에 공연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바그너의 아들을 크게 감동시킬 정도로 훌륭한 연주였다. 바그너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현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상징주의적 연출과 반리얼리즘 연극의 선구자이며 현대 무대 미술의 아

버지로 평가되는 아피아를 적극 유치하여 무대연출에 혁신을 시도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일들을 시도함으로써 인습에 찌든 사교장에 불과했던 오페라 하우스를 현대적인 예술공연의 무대로 전환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토스카니니는 오페라 못지않게 교향곡 지휘에도 정열을 쏟았는데, 이것은 동세대의 이탈리아 지휘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의 지휘는 명쾌하고 단호한 것이 특징으로서 음악의 구조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세부를 깊이 파고드는 해석을 시도하며 연주자의 감상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절대 배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는 동시대의 지휘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지나치게 발휘하여 주관적 해석으로 가득찬 연주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였으며, 지휘자는 작품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작곡자가 표현하고자 의도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살리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신즉물주의’라는 용어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토스카니니의 다음 세대 지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악보에 충실한 연주를 할 것을 항상 요구하였으며 작곡자가 무엇을 표현하려 하였는가는 악보 속에 모두 다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는 했다. 토스카니니가 언젠가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에 대해 “사람들

은 이곡이 운명에 대한 도전이니 베토벤의 초인적인 의지를 나타내었 느니 말하지만 나에게 이곡은 단지 Allegro con brio (빠르게 열정적으로: 베토벤이 1악장 시작부분에 적어둔 지시사항) 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그의 음악해석에 대한 특징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화 때문에 호사가들은 “토스카니니는 악보에 너무 집착하여 언제나 똑같은 연주를 들려준다.”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그를 비판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연주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해석에 도전하는 신선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널리 퍼져있는 그에 대한 잘못된 소문 한 가지를 소개하면, “토스카니니는 악보만 중시해서 악보 중 한점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브람스 교향곡 1번 4악장 후반부에 독자적으로 관악기를 첨가하여 연주와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토스카니니가 말하기를 “브람스가 이곳에 금관악기를 더 추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곡의 흐름상 자신이 대신 악보에 가필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드뷔시의 곡도 작곡자의 허락 하에 많은 가필을 한 적이 있으며, 그 외의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가필의 흔적은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따라서 그는 기계적으로 악보에 매달린 지휘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토스카니니는 스코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것이 단순한 음표의 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는 작품의 스타일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개의 작품이 지니는 개성을 최대한 살리는 연주를 하였던 것이다.

그는 항상 멜로디를 강조하여 ‘노래 부르듯이’ 연주할 것을 자주 악단원들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연주를 들어보면 이것은 성악적이라기보다는 기악적인 선율미를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감미롭고 편안한 느낌의 여유로운 멜로디보다는 루바토(연주자가 곡의 리듬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것)를 최대한 억제하고 명확한 프레이징과 강한 악센트를 첨가하여 멜로디 라인이 선명하게 강조되는 효과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주가 자유로운 선율에 중점을 둔 푸치니의 오페라에서는 때때로 융통성 없이 경직된 듯한 느낌을 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음악의 형식과 구조에 중점이 가해지는 교향곡이나 베르디의 오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그의 연주는 강인한 리듬과 굵은 골격을 바탕으로 치밀한 세부

적인 조탁이 함께 어우러져 장대한 외형과 섬세한 내면이 유기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음반으로 남아있는 그의 연주는 녹음실의 구조적 문제와 녹음기술의 문제 등으로 매우 건조하고 딱딱한 인상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나 실제 공연장에서 직접 연주를 들었던 음악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실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음향을 창조하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화산 같은 폭발적 기질로 뭉친 그는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마술사와 같은 존재였으며, 그와 함께 연주하였던 단원들은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들어 도취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강렬한 카리스마 때문에 후배 지휘자들은 좋은 싫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로 그는 진정한 20세기 최고의 마에스트로인 것이다.



토스카니니 음반 Best 5

토스카니니가 남긴 음반목록은 방대한 분량이어서 5개만을 고른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주문이다. 상대적으로 녹음상태가 양호하면서 보편적인 명반으로 추천받는 음반들을 소개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명반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 아래의 음반들은 모두 NBC 교향악단과의 연주이며 RCA 에서 “불멸의 토스카니니(Toscanini, The immortal)” 시리즈로 발매된 리마스터링 CD로 구할 수 있다.

1. 베토벤 교향곡 전곡(1949~1953, RCA)

토스카니니의 말년에 완성한 이 전집은 그가 베토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열정과 경외심 및 음악관을 집대성한 결과로서 인간의 의지가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노장의 연주는 지금 들어도 그 해석이 전혀 예스럽지 않고 신선한 생동감이 가득하며, 세부적인 음표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듬은 치밀한 구성과 시종일관 놓치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음의 벽돌로 쌓여진 거대한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뛰어난 조형미는 가히 신화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명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베르디 ‘팔스타프’ (1950, RCA)

토스카니니는 “‘팔스타프’ 없이는 토스카니니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평생 이 작품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연주를 하였다. 젊은 시절의 카라얀은 그의 ‘팔스타프’ 공연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첫 소절부터 나는 마치 세계 한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술회하였으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팔스타프’ 공연을 들던 바인가르트너가 1막이 끝나고 오케스트라석에 달려가 “이 같은 연주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었다.”고 소리쳤을 정도로 마에스트로는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음반에서 토스카니니는 마치 신들린듯한 연주를 들려주는데,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유려한 멜로디 라인, 유쾌하면서도 심각한 음악의 진행, 성악과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조화 등은 가히 흠잡을 데 없는 명연주의 모범을 들려준다.

3. 베르디 ‘레퀴엠’ (1951, RCA)

베르디와 동시대를 살면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의 서거를 맞이하여 직접 레퀴엠을 연주했던 토스카니니인 만큼 연주에서 남다른 감동이 느껴진다. 거대한 스케일의 이 작품을 한 편의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풀어내는데, 세부까지 치밀하게 다듬은 조탁과 넘치는 박력, 전율스러운 공포감, 숭고한 경건함 등이 함께 어우러져 엑스타시의 극한을

느끼게 한다. 오케스트라는 물론 볼세첼의 명인들로 구성된 성악진도 최고의 기량을 들려준다. 이러한 연주는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것이다.

4.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1953, RCA)

매우 당당하고 스케일이 크며 생동감이 넘치는 화려한 명연이다. 각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특징이 아주 잘 포착되어 있으며, 특히 ‘바바야가의 오두막집’이나 ‘키에프의 성문’ 등의 거대하고 폭발적인 연주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통쾌한 해석이다. 전체적으로 이탈리아적인 밝고 화사하며 극적인 느낌이 좀 더 강조된 연주로서 모노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매우 선명하여 감상에 큰 지장이 없다.

5. 레스피기 ‘로마3부작’ (1949~1953, RCA)

토스카니니는 이 작품의 화려한 색채감과 정밀한 묘사적 성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각각의 곡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파적인 요소들의 재현에 매우 충실하다. 흥겹고 축제적인 성격과 서정적이고 명상적인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한편의 드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거대해지고 폭발적으로 변하는 음향의 홍수 속에서는 황홀경까지 느끼게 된다. 흠잡을 데 없는 명연이나 녹음기술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최상의 사운드를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못내 아쉬울 따름이다.

회비납부독려 서신

庚寅年 희망찬 새해에도 회원님의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동안 회원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원에 경상북도의 사회는 2,900여 회원 여러분의 권익과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반적으로 어둡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로 온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만들었으나, 다행히 회원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강국면에 접어들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의사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원칙을 고수하는 의사회' 라는 타이틀과 위상은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회장으로서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의료계는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투자개방형의료법인 등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메가톤급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의견도 내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해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으로 많이 지쳐 있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의협 회비조차 내기 힘든 선생님이 늘어나는 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이 모아져야만 우리 의사회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힘이 드는 지금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의사회 활동은 두 가지 동력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무형의 동력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유형인 동력인 선생님의 회비입니다.

선생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수많은 법률 제·개정 추진과 건강보험수가 협상, 각종규제완화 등 우리들의 생업과 관련된 권익옹호에 쓰여지고 있사오니 꼭 납부해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든든한 힘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경인년 백호랑이 처럼 용맹한 모습으로 한발 한발 희망을 향해 나아갑시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2010. 1.

경상북도의회사회장

2009년도 회비납부안내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휴직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42,000	242,000	137,000	10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계	580,000	492,000	367,000	212,000	105,000	

※ 입금계좌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 납부기간

2010년 1월 22일(금)까지
이후 추가 납부 가능

- 1) 회비납부와 관련해서는 소속 의사회나 본회(☎ 053-941-778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 홈페이지(www.igbma.or.kr)를 이용하시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결제도 가능합니다.

대구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시간표

(적용기간 : 2010. 1. 6 ~ 변경시)

〈국내선〉

구 분	출 발				구 분	도 착			
	시간	요일	항공사	비고(운항)		시간	요일	항공사	비고(운항)
대구 ⇨ 인천	07:05	매일	대한항공	B737	인천 ⇨ 대구	09:25	매일	대한항공	B737
	16:30	매일	대한항공	B737		20:15	매일	대한항공	B737
대구 ⇨ 제주	07:25	매일	대한항공	B737	제주 ⇨ 대구	11:20	매일	아시아나항공	B727
	08:00	매일	아시아나항공	A320		12:05	매일	대한항공	B737
	10:00	매일	대한항공	B737		13:30	매일	아시아나항공	B737
	11:50	매일	아시아나항공	B727		15:55	매일	대한항공	B737
	12:40	매일	대한항공	B737		17:40	매일	대한항공	B737
	13:55	매일	아시아나항공	B737		18:35	매일	아시아나항공	A320
	18:20	매일	대한항공	B737		21:05	매일	아시아나항공	B737
	19:05	매일	아시아나항공	A320		21:35	매일	대한항공	B737

〈국제선〉

대구 ⇨ 상해	12:15	월·화·목 금·일	중국동방항공	A320	상해 ⇨ 대구	11:25	월·화·목 금·일	중국동방항공	A320
대구 ⇨ 북경	12:30	월·목·금	중국국제항공	B737	북경 ⇨ 대구	11:35	월·목·금	중국국제항공	B737
대구 ⇨ 심양	11:25	목·일	중국남방항공	MD90	심양 ⇨ 대구	10:25	목·일	중국남방항공	MD90

포항공항 동계 항공기 운항시간표

(적용기간 : 2010. 1. 5 ~ 2010. 3. 27)

구분 연번	도 착				출 발			
	편 명	서울발	포항착	비 고	편 명	포항발	서울착	비 고
1	OZ8331	07:30	08:20	매일운항	OZ8332	08:50	09:40	매일운항
2	KE1531	10:00	10:50	매일운항	KE1532	11:25	12:15	매일운항
3	KE1533	13:00	13:50	매일운항	KE1534	14:25	15:15	매일운항
4	OZ8335	14:50	15:40	매일운항	OZ8336	16:10	17:00	매일운항
5	KE1539	16:00	16:50	매일운항	KE1540	17:25	18:15	매일운항
6	OZ8152	제주발	포항착	화, 금, 일 운 항	OZ8151	포항발	제주착	화, 금, 일 운 항
		15:20	16:20			17:00	18:00	

· KE : 대한항공(B737), ARS : 284-0111~2, 예약 : 1588-2001 · OZ : 아시아나항공 (B737), ARS : 284-2626, 예약 : 1588-8000

심평원 대구지원 민원 전화번호

- 관할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표 전화번호(고객센터) : 1644-2000, (053) 750-9301~3
- 우) 700-082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100번지(신성미소시티 2층)

부 서	세 부 민 원 사 안	전화번호	FAX
운영부	청구명세서 접수(서면, 디스켓, EDI) 의약품 치료재료 목록표 접수 요양기관 기호부여, 변경, 폐업 등 간호등급 관리	(국번없이) 1644-2000 (053) 750-9311 (국번없이) 1644-2000 (053) 750-9303	741-6876
심사 평가부	대구지역 병원, 의원, 보건기관, 약국심사 경북지역 병원, 의원, 보건기관, 약국심사 대구, 경북 치과병, 의원 심사(이의신청 보완자료 포함) 대구, 경북 한의원 심사(이의신청 보완자료 포함) 이의신청 보완자료 DRG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053) 750-9401 (053) 750-9350 (053) 750-9337~9 (053) 750-9353~5 (053) 750-9346, 9349 (053) 750-9344 (053) 750-9343 (국번없이) 1644-2000	741-5216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g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세상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더 넓은 마음을 담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희귀한 질병까지
이 세상 모든 곳을 돌보는 큰 마음을 담겠습니다.

실업가정 학생들을 지원하는 화이자 사랑의 장학금,
투병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화이자 사랑의 병원 그림축제,
국내 의학 발전을 지원하는 화이자의학상까지-

이 알약 하나에 한국화이자제약의 모든 뜻을 담았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끊임없는 노력,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인트롬

Sarpogrelate HCl 100mg



성분 · 함량

염산사포그릴레이트100mg

효능 · 효과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동통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상 개선

용법 · 용량

염산사포그릴레이트로서
보통 성인 1회 100mg을
1일 3회 식 후 경구 투여 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 선택적 세로토닌(5-HT₂ blocker)수용체 길항작용
: 5-HT₂ 선택적 친화성으로 인하여 혈관수축과,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 뛰어난 유연성 개선효과
: 유연성 저하로 인한 적혈구 용혈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탁월한 효과의 말초순환 장애개선
: 말초 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순환장애를 개선하고,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동통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을 개선합니다.

■ 당뇨병자에서 최적의 항혈전제
: 인슐린 민감도 개선 및 당뇨병성 신증환자에서
일부민 배설율을 감소시켜줍니다.



우리들제약
www.wooridulpharm.com



세계적인 나노기술 산업클러스터
나노기술집적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전문연구소
생명공학연구센터



첨단기술 발전의 핵심
포항가속기연구소

포스코의 열정과 사랑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고
첨단과학도시로 성장하는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역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포스코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의 메카
포스텍



실용기술 전문 연구기관
산업과학연구원

